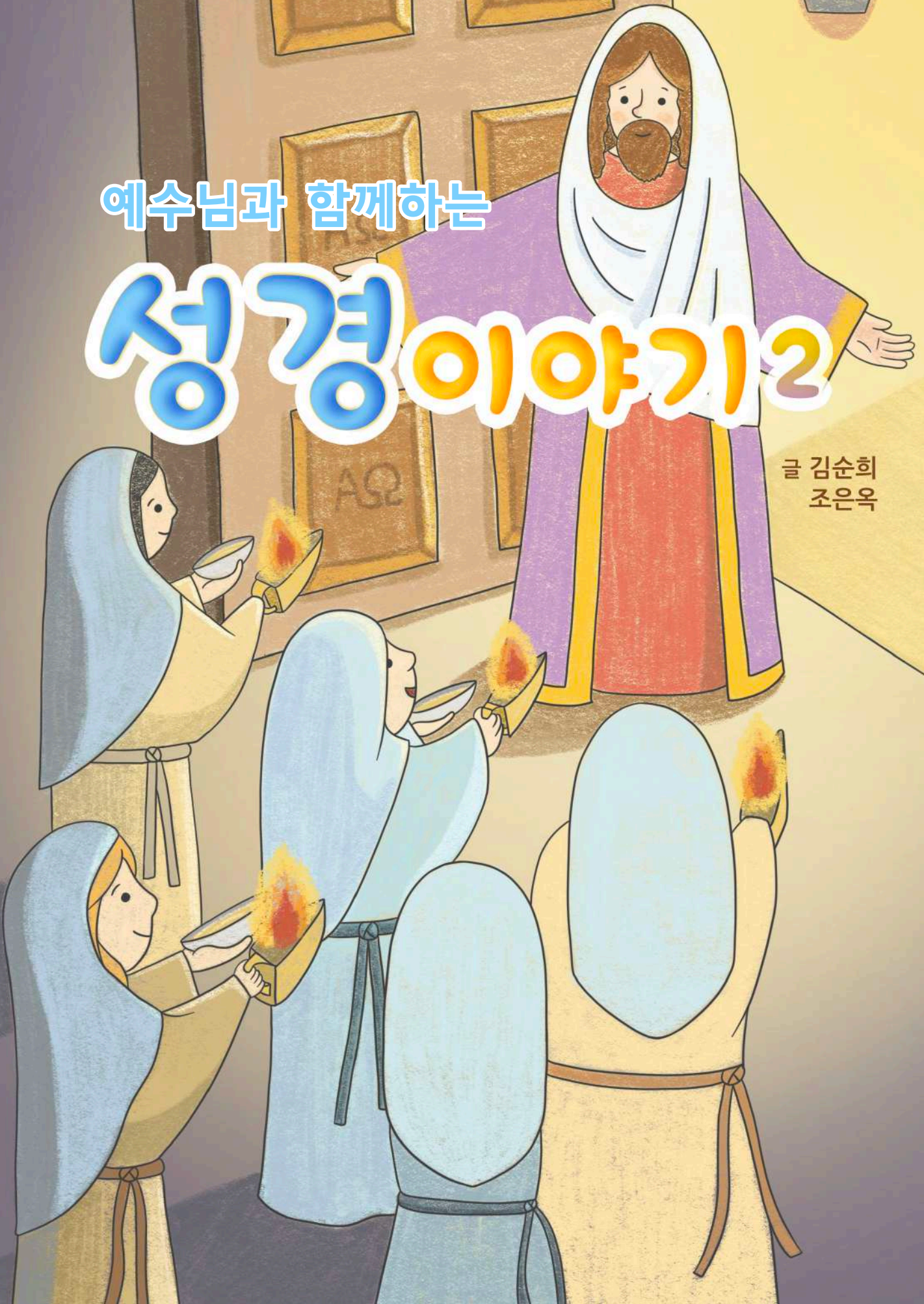


예수님과 함께하는

# 성경이야기 2

글 김순희  
조은옥



이 동화책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0년 12월 14일

발행인 : 이동재

글 : 김순희 조은옥

전체 편집 : 이리브가

그림 : 김하나

번역 : 이해니 이현주

부록 제작 : 이해니 정은숙 나은영

워십 : 강지인

노래 : 최예나



# 이야기 목차

1. 혈루병이 고쳐졌어요 1
2. 앞이 보여요 9
3.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17
4.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25
5. 백부장의 믿음 33
6. 어린아이의 도시락 41
7.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49
8. 바디매오의 외침 57
9. 누가 나의 이웃인가 65
10.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73
11. 용서 81
12. 영생을 얻고 싶어요 89
13. 등불을 켜 다섯처녀 97
14.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사람 105
15. 참 잘했어요 113
16. 예수님의 기도 121

# 1. 혈루병이 고쳐졌어요.

(마태복음 9:18-26, 마가복음 5:25-34, 누가복음 8:40-56)

한 마을에 혈루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왔어요.

“친구야, 오늘도 안색이 많이 안 좋네. 누워서 좀 쉬어.”

“응. 고마워. 사실 나 엄청 힘들어.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여태 잘 견뎌왔잖아. 힘내, 친구야.”

“그동안 잘한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 빈털터리야. 에휴! 그렇게 병원을 다녔어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어.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 없어.”

“안 돼, 그러지마. 친구야! 오늘 내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

“응? 기쁜 소식?”

“응. 예수라는 분이 조금 있으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귀신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대.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대.”

“정말? 누구? 예수?”

“응. 예수님. 그러니 너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봐.”

“정말? 그 말이 진짜지?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12년을 고생하며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뭘.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반드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갔어요.



소문대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하여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갔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거야.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져지겠어. 힘 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어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 몸이 가벼워졌어. 피가 멎었어. 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느꼈어.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그 여인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 떨었어요.  
용기를 내어 예수님에게로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인이여. 어찌하여 내 옷을 만졌느냐?”

“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네.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에요.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 병이 치료될 것이라 생각되어 그리하였어요.”

“.....”

“근데요, 예수님! 예수님! 제 병이 지금 다 나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안심하고 가거라. 이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거라.”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녀의 믿음으로 병도 치료되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은 최고의 날이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마가복음 5:34)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본단다.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그 믿음까지 보고 있어.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올 때, 다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고 평안을 주기도 하지.

그러니까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나랑 얘기하자.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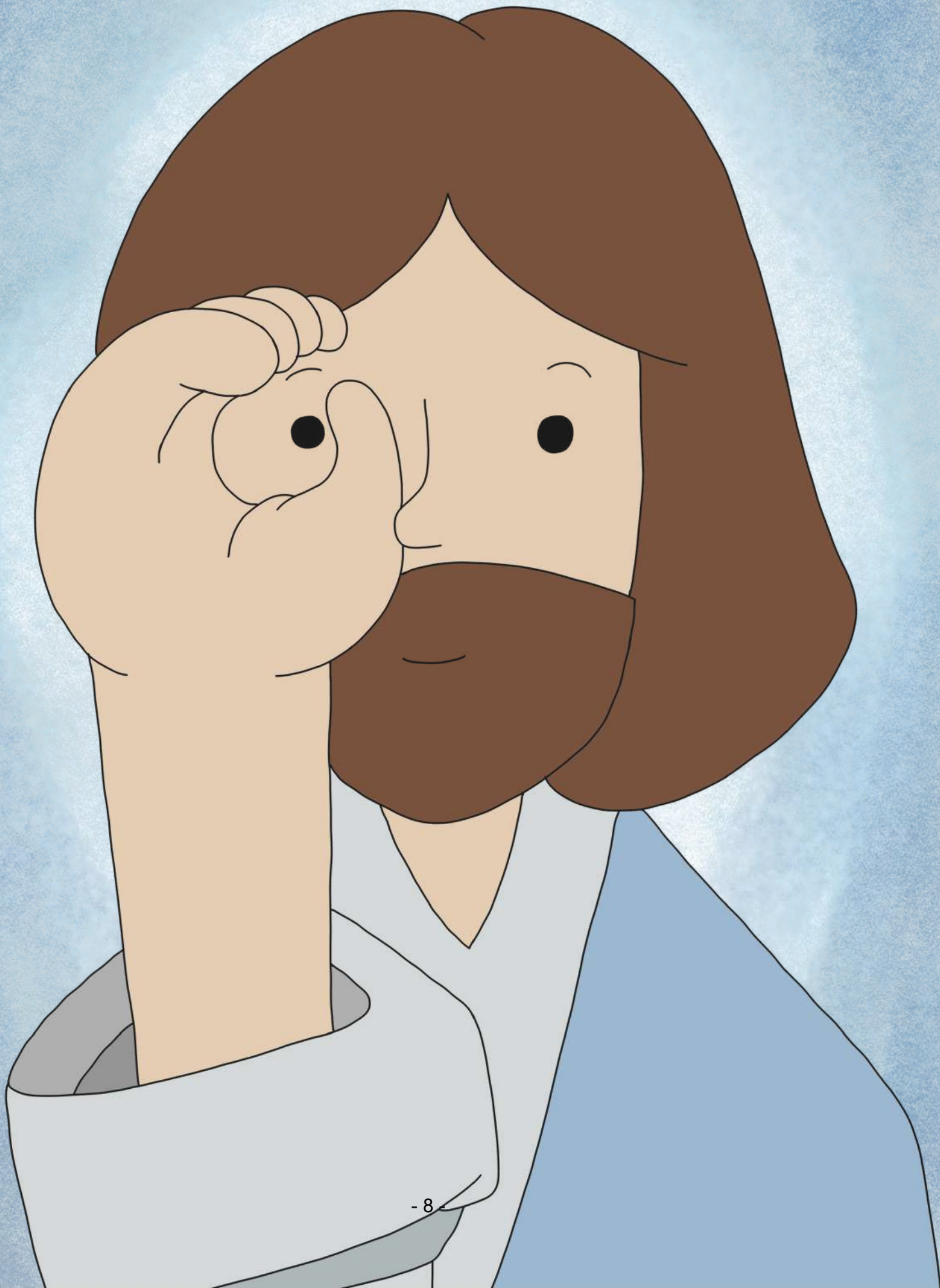
예수님! 아까 예수님께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게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마음 한쪽에서 그 친구를 밉다고 하거든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봐 거짓말 했어요.

헉! 거짓말이 더 나쁜데…….

예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예쁜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예수님께 다 말기고 기도하며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2. 앞이 보여요.

(요한복음 9:1-41)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눈먼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어요.

“응.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네?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인데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눈먼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어려워져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밤에는 깜깜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네.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잘 보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앗! 이게 뭐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 눈에다 뭐 하십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눈먼 사람은 왜 그래야하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실로암 못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해도 소리는 잘 들을 수 있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 그분은 분명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 그래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빨리 눈을 씻어보자.’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씻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손에 더 이상 흙이 만져지질 않아. 깨끗하게 씻어졌어. 아! 눈을 아직 뜨지 않았는데도 빛이 느껴진다.”

조금씩 조금씩 조심히 눈을 떠보았어요.

“우와! 세상에. 내 눈에 실로암 물결이 보여요. 말로만 듣던 파란 하늘도 보여요. 아~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군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눈이 보여요. 야호~”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멀어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니야. 앞 못 보던 그 사람이 맞아.”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씻었어?”

“그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그게 정말인가?”

“네네. 제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니. 꿈은 아니겠지요?”

“내가 꼬집어줄까? 하하.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했는가?”

“저는 창세로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4-5)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보기 위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했어.

그거 알아? 눈먼 사람이 나에게 고쳐달라고 먼저 매달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그에게 간 거야.

지금도 나는 그때와 똑같이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너희도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예쁜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부활한 것을.”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3.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마태복음 9:1-8, 마가복음 2:1-12, 누가복음 5:17-26)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아보고 미리 가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집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까?”

“문 앞에까지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러나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데 어찌지?”

“오늘 이 친구를 꼭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하는데…….”

“아하!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 뭔데? 빨리 얘기해 봐봐.”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들것 짜 내리는 거야. 들것의 네 귀퉁이를 밧줄로 연결해서 우리가 조심조심 내리면 될 것 같아.”

“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지붕으로 가 보자.”



네 명의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들것을 내려 보낼 만큼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밧줄에 달아내려 보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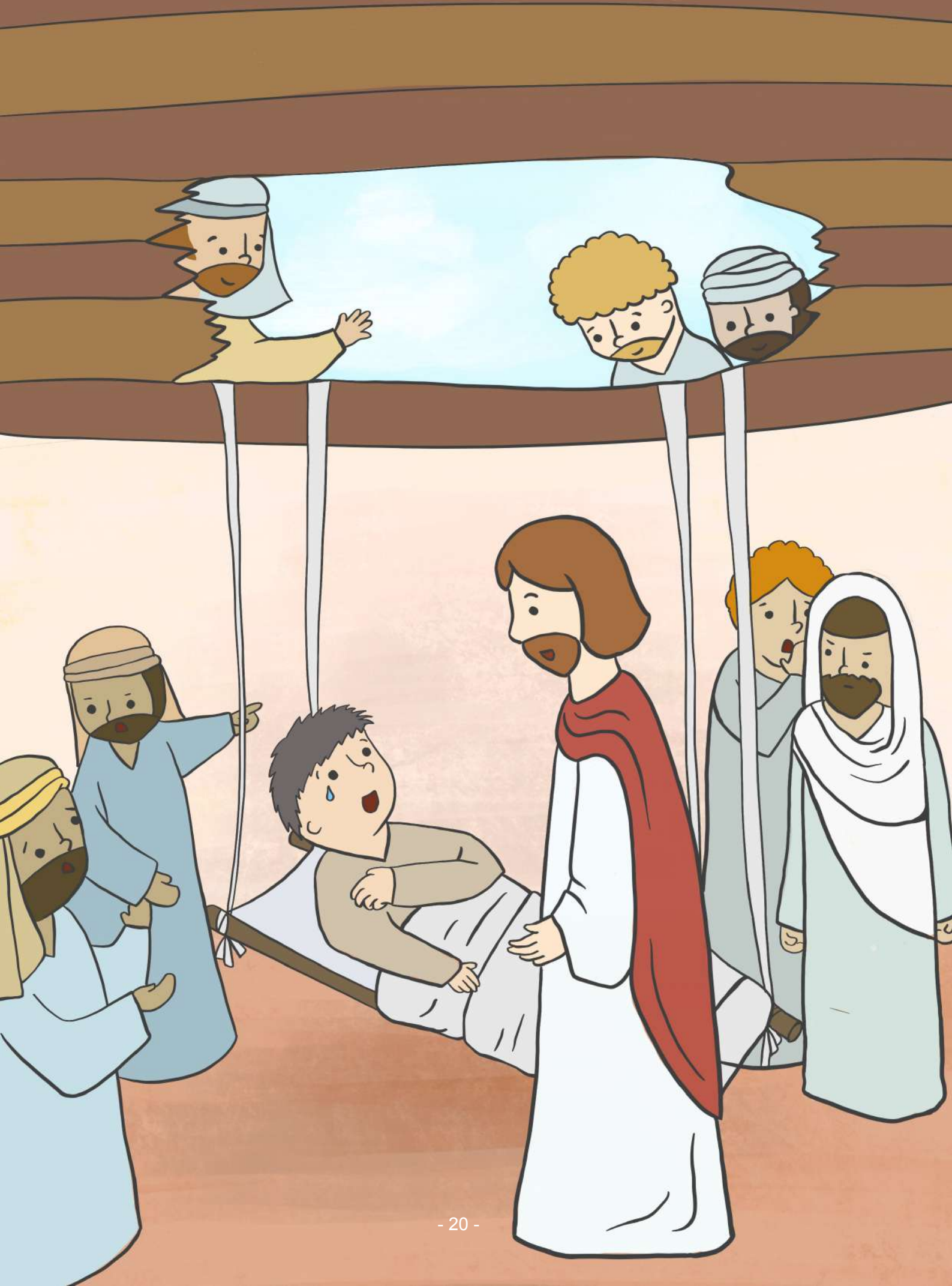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시나요?”

“내가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건…….”

“그렇게 말한 것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그 즉시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들것을 챙겨 들고 걸어 나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 보았어요.

“얘들아! 친구가 걸어 나오고 있어. 병이 고쳐졌어.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고마워.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고쳤어.”

“어디 좀 더 걸어봐. 신기하다. 보고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네.”

“예수님이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가 펴지고 걸음이 걸어지는 거야. 자 봐. 땀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5)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얘들아, 난 깜짝 놀랐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들것이 내려오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앞에까지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 뜯어서까지 친구를 내 앞에 내려 보낸 거야. 그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한 마음이 되어 내가 고쳐줄 것을 믿은 중풍병자의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감동시켰어.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 매일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도록 하자.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 매일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도록 노력할게요.

한 밤 자고나면 키가 쑥 크듯이 나의 믿음도 매일 매일 자랄 수 있겠죠?

믿음이 쑥쑥 자라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4.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4:22-33, 마가복음 6:45-52, 요한복음 6:15-21)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기 위해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언제 이렇게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지? 우리 제자들은 어디쯤 가고 있나?”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동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었어요.

한편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얘들아, 주위를 좀 둘러봐. 예수님이 타신 다른 배가 오고 있는지…….”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아. 아무리 봐도 다른 배는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불안해.”



사방을 둘러보아도 바다에는 제자들이 노 젓고 있는 배밖에 없었어요. 그때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노를 단단히 잡아!”

“아! 노가 저어지지 않아. 바람이 정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어.”

“맞아. 바람을 거스르며 노를 저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어찌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아아! 너무 무서워!”

“예수님! 빨리 와 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앗! 유령이다!”

제자들이 덜덜 떨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앞을 봐.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어.”

“어디어디? 악! 귀신이다.”

“아!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안심해도 돼.”

“우와! 예수님! 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행동 빠른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의 발은 벌써 배에서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바다엔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바람을 본 베드로는 무서워졌어요. 그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쫓쫓. 이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왜 의심하니?”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바로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찬양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31-32)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나를 믿고 의지하면 베드로처럼 너희들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주위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워하면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되지.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낄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시간과 생활 속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손을 내밀면 즉시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줘.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우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멋지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신나고 행복해요.

예수님!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게요. 멋진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5.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5-13, 누가복음 7:1-10, 요한복음 4:43-54)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예수님, 백부장이 우리를 주님께 보내었어요. 그의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길 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는 다른 백부장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었어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가주세요.”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들으신 후 일어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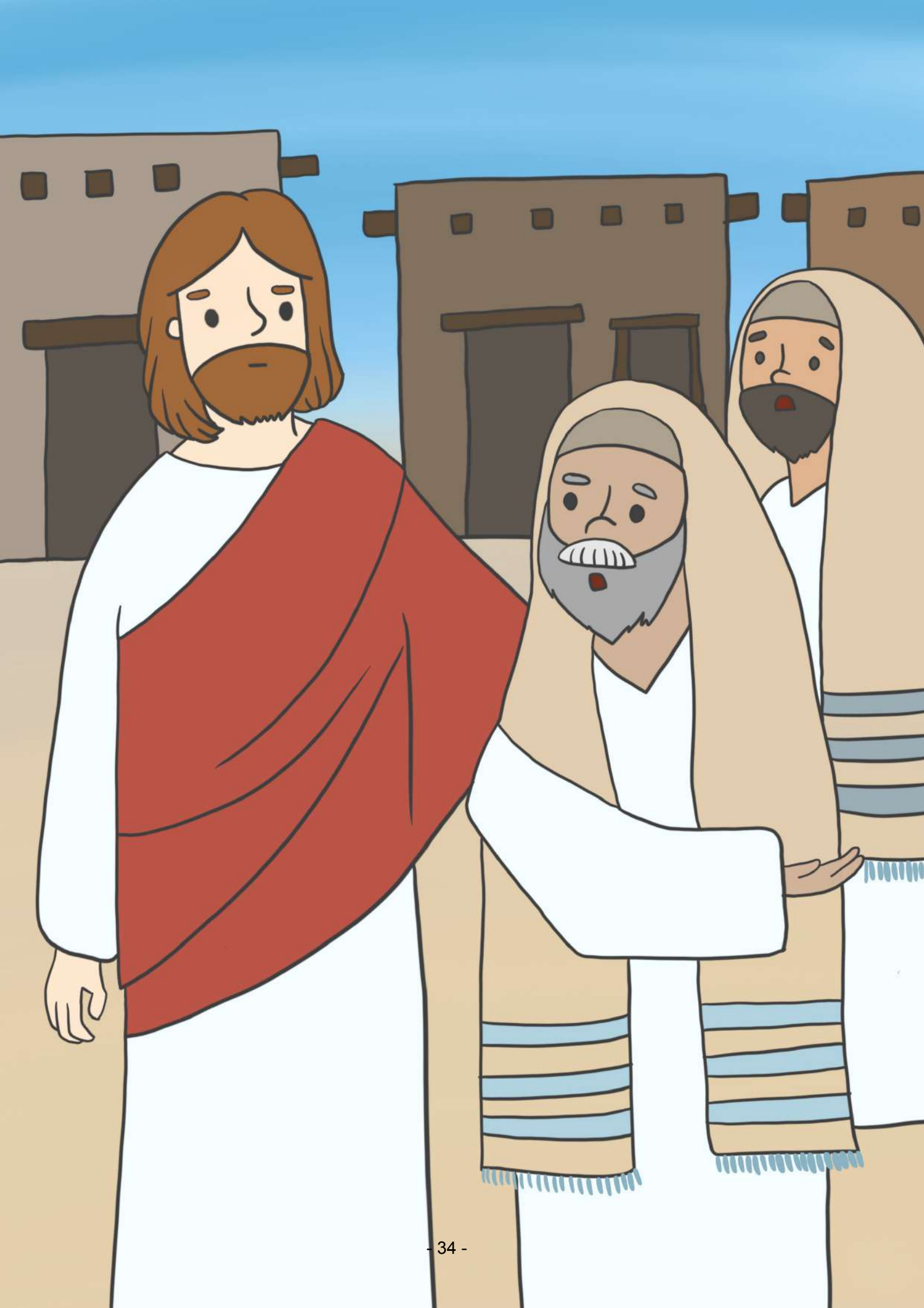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오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백부장의 친구예요.”

“거의 다 왔는데 무슨 일인가?”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힘들게 우리 집까지 오시게 할 수는 없다. 그건 너무 죄송한 일이야.’라고 했어요.”

“감히 주님의 얼굴을 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 ‘하인의 병이 고쳐질지어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백부장의 집으로 옮기려 하자 친구들이 또 말했어요.

“예수님! 백부장이 또 이렇게 아뢰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보아라.”

“나도 군대 장교로서 아랫사람에게 가라하면 그가 가고 윗사람이 나에게 오라하면 내가 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수고롭게 오시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하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인의 병이 회복되리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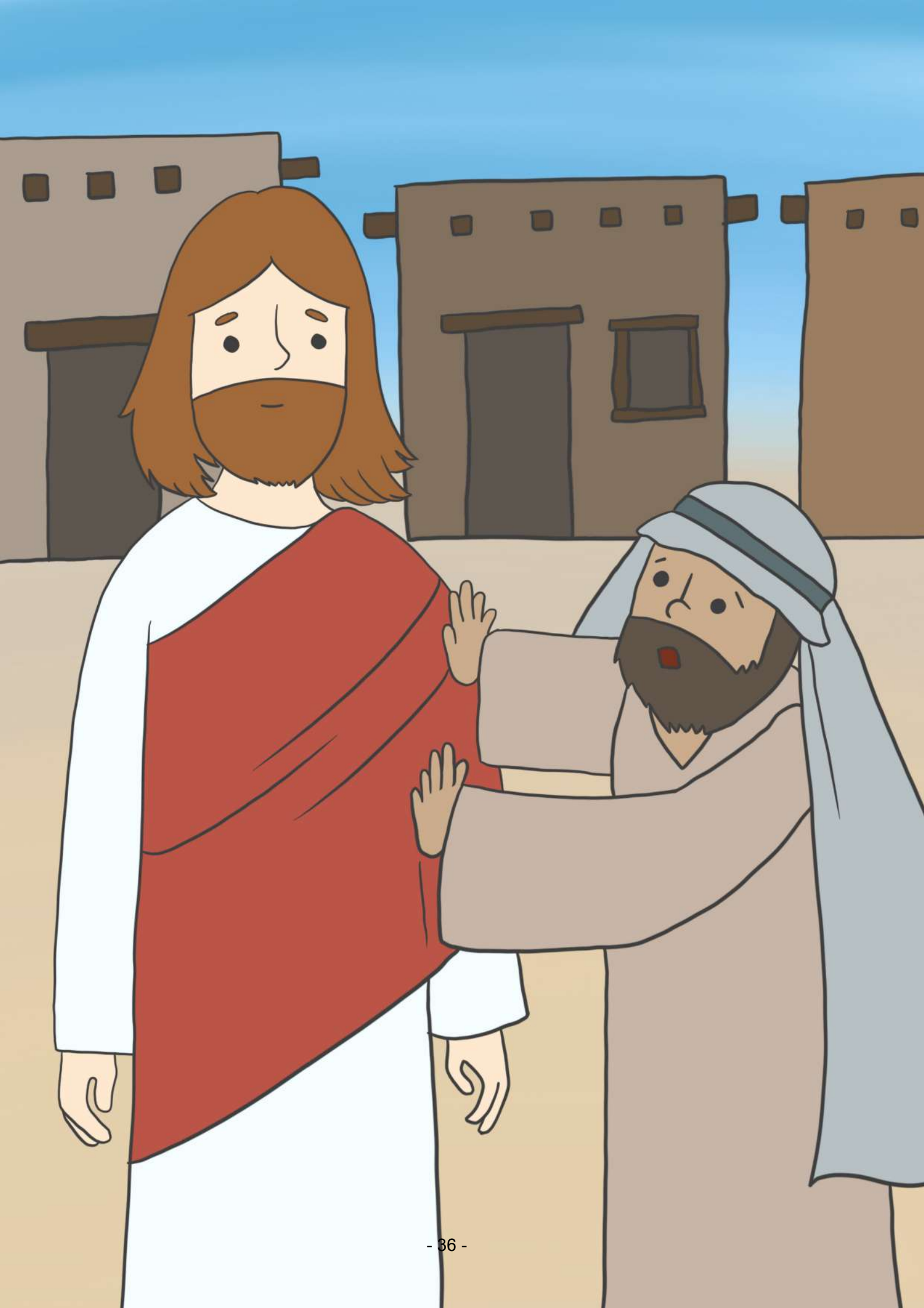
백부장의 친구들 말을 들은 들으신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그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로서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그가 참으로 사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칭찬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단숨에 백부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백부장은 대문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어. 친구야.”

“네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뭐라고 하셨어? 병이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너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

“너의 믿음을 칭찬하셨으니 너의 믿음대로 고쳐질 것이라는 말씀 아닐까?”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가서 하인의 병이 고쳐졌는지 알아보아야겠다.”

백부장은 집안으로 들어가 하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보게. 아니, 자네……. 이제 다 나왔나? 병이?”

“네, 주인님. 좀 전에 몸이 가벼워지면서 씻은 듯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7:9)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백부장의 사랑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된 말씀 잘 들었니?  
너희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  
내가 백부장 자신의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말씀만 하셔  
도 하인의 병이 고쳐지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본받도록 하자.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위한 사랑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  
도해.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매일 매일 기도하자.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요. 엄마랑 전철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  
리에 고무 같은 바지를 입고 옆드려 있었어요. 그 아저씨 앞에는  
동전이 담겨있는 그릇이 놓여있었어요.  
전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갔어요. 헐~. 누군  
가의 발에 채여 동전그릇이 엎어졌어요. 난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서 얼른 동전을 주워서 다시 아저씨 앞에 놓아주었어요. “아저씨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구구 우리 예쁜  
공주님!” 그랬어요.

아! 오늘 저 예쁜 마음 가진 거죠?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6. 어린아이의 도시락

(마태복음14:13-21, 마가복음6:30-44, 누가복음9:10-17, 요한복음 6:1-14)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시간도 없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람들 좀 보세요. 걸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마을마다 다 따라 나와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나와 합쳐지니 점점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들이 배에서 내릴 곳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먼저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셨어요.

“모두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들판에 가득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자 제자들은 걱정이 앞섰어요.

“저녁때가 되어 배고플 텐데……. 예수님께 말씀드려보자.”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곳은 식당도 없는 벌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

“네에? 예수님. 우리가 마을에 가서 저들에게 먹일 빵을 사오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먹을 빵을 사오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저들을 먹일 돈을 계산하느라 바빴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오너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보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 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어요.

“주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라.”

제자들은 사람들을 오십 명씩, 백 명씩 무리지어 앉혔어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주었는데도 떡이 그대로 있어.”

“마태! 요한! 야고보! 자네들은 어때?”

“베드로! 우리도 그래.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하하!”

모든 사람에게 떡을 다 나누어준 후 물고기도 나누어 주었어요.  
제자들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은 떡과 물고기 부스러기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다 거두어라.”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을 거둔 바구니가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먹은 사람을 세어보니 남자 어른만 오천 명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찬양했어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던라 (마가복음 6:43-44)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걱정했지만 사람들은 내 말에 집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었지.

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인 사람들을 먹이고 싶었어.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 가지 않고 오직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맛난 하나님의 음식으로 사랑을 주었지.

나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주고 싶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보면 선물을 많이 주고 싶어진단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던 어린아이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 가끔 부모님 따라서 어른 예배에 가면 너무 지루해서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거든요.

근데요, 제 친구는요. 엄마 따라서 새벽예배에 갔다가 학교에 온대요. 그 친구도 대단하죠? 예수님이 칭찬해주실 것 같아서 샘났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에 가도 화장실 가지 않고 예배 잘 드릴래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7.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 마태복음 17:14-20, 마가복음 9:14-29, 누가복음 9:17-43상)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갔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율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와 문안인사를 했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세요?”

“왜 이리 소란인 것이야? 무엇을 가지고 그리 율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어?”

사람들 중 한명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을 돌보아주옵소서. 저의 외아들입니다.”

“계속 말해 보아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제 아들에게 들어가면 그 아이가 넘어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안색이 파리해지고 온 몸이 뻗뻗해져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내쫓아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어?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어?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였어요.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어요. 그러나 주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세요.”

“어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바로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믿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 소리쳤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그리고 다신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아이는 죽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아이가 죽은 것 같아.”

“글쎄 말이야.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 목숨도 같이 가지고 갔네.”

“예수도 별 수 없네, 뭘.”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별떡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온전히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들어와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저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너희 믿음이 참으로 작은 까닭이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거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네, 주님.”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29)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이 그리 힘든 일일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같은 겨자씨를 보았니?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 자라나면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큰 나무가 된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큰 나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가 그 믿음을 갖는 거란다. 그 믿음이 자라나 너희  
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너희  
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단다.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올해 봄, 화분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주며 바람  
도 통하게 하고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두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  
일, 매일 바라보며 싹이 트길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인사를 하더라구요. 정말 기  
뻐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 식물을 키우면서 햇빛, 바람, 물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쑥쑥 자라려면 찬양, 기도, 예배 세 가  
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8. 바디매오의 외침

(마태복음 20:29-34, 마가복음 10:46-52, 누가복음 18:35-43)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들었어요.  
길에 앉아있던 바디매오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네들 어디 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아니, 소문 못 들었어?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했어.”  
“아마 지금 지나가시나봐. 나도 저 사람들 따라 가봐야겠어.”

바디매오의 귀가 활짝 열렸어요.

“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구? 그럼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난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거야.”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매오는 사람들처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바디매오를 꾸짖었어요.

“이봐! 조용히 하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조용히 해!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하지만 바디매오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바디매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를 불러오라.”

사람들이 바디매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안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

“정말요?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세요?”



바디매오는 너무 좋아서 겹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갔어요. 사람들과 부딪쳐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 없었어도 앞으로 엮어질 듯이 뛰어나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의 소원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바디매오의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제 눈이……. 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얼굴이 잘 보이느냐?”

“그럼요. 예수님! 저요.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갈래요.”

바디매오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마가복음 10:52)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바디매오는 내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지. 더 크게 더 더 크게 외쳤어.

바디매오처럼 적극적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나에게 알려줘.

모든 문제들을 소리치며 알려줘. 그것이 바로 기도야.

너희가 나에게 문제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해주고 어떤 기도는 늦게 응답해줄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응답해줄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엄마가요. 어떤 때엔 “엄마!”하고 한번만 불러도 “응, 우리 애기.”하고 금방 달려오세요. 근데 어떤 때엔 “엄마! 엄! 마아!” 여러 번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가보면 일하느라 바빠서 대답을 못해주세요.

예수님도 바쁘시면 제 기도 못 들으세요? 헤헤. 아니시죠?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 기도 들으실 거죠?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9.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복음10:25-3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께 여쭙어 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인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여행자의 이야기예요. 그는 혼자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꼼짝 마!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 놔!”

“안돼요. 저는 예리고까지 가야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밥 한 끼 사먹을 돈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에잇!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강도는 여행자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으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행자의 눈에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어렴풋이 들어왔어요.



‘아, 제사장님이시네.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젠 살았다.’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이보게. 미안하네. 난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 봐야 해. 곧 누군가가 또 지나갈 거야. 그때 도움을 청해 보게.”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버렸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버린 후 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었어요.

여행자는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이젠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레위인은 강도 만난 여행자를 쳐다보고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 할 거야.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속으로 생각하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봐요! 제 말 들리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많이 다치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소독한 후에 자기 옷을 찢어 싸매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길에 버려두지 않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인장! 빨리 나와 보세요.”

“누구세요?”

“이곳에서 자고 갈 수 있나요?”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분은 많이 다치셨네요. 쫓쫓”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밤새 돌보아주었어요.

이튿날, 길 떠나기 전에 여관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장, 이 분을 돌봐주세요. 필요한 돈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다녀와야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만일 치료하고 간병하는데 비용이 더 들면 그때 와서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관주인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끝까지 돌보아주었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물음을 던지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27)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  
보고도 피해버린 제사장? 누군가 도와줄 거라며 지나간 레위인?  
아니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준 사마리아인?  
그렇지!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지  
그렇다면 너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니?  
나는 너희에게 물어보고 싶어.  
“넌 어떠니? 부모님이 도움을 청할 때,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그  
래서 도와주어야할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니?”  
그 답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잘 알아요.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고 예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요, 예수님! 이웃이 뭐예요? 네. 가까이 사는 사람이요?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돌보아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네요.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될게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0.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마태복음12:22-37, 마가복음 3:20-30, 누가복음6:43-45,11:14-23,12:10)

어느 날, 예수님의 친척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 이 사람을 보세요. 너무 불쌍해요.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어요.

“아버지! 이 자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환자의 눈이 떠졌어요.

“이…… 에……예……수님! 눈이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아! 그리고 보니 병어리였던 그의 입술이 열려서 말도 하고 있어요. 귀신들린 사람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렇지 않고선 절대 저 사람을 고칠 수 없어.”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사람들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면 그 나라가 망하고 같은 가족끼리 싸움을 하면 그 가정이 망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니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요. 설 수 없습니다. 망하고 말죠.”

“그럼 내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를 따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줄 아직도 모르겠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나를 말로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그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어.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다. 알겠느냐?”

항상 따뜻한 미소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오늘은 너무나도 무섭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쁜 법이다. 너희의 마음이 악한데 너희 입에서 착한 말이 나오겠느냐? 너희는 늘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구나.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지금 한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들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32)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얘들아!

착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사람이 돼.

너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생각해보  
자. 나는 너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나쁜 마음이 지워질 거야.

모두 착한 사람 되자.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어요.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래요.

엄마가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 그만해.” 그러면 화가 나요.

1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난 2시간도 금방 지나가버리거든요.

아빠가 피곤하다고 나랑 안 놀아줘도 막 화가 나고 아빠가 미워요.

이런 거 다 나쁜 마음이죠?

내가 화를 내고 떼를 쓰면 엄마가 찬양을 틀어줘요. 그러면 이상하  
게도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씩 없어져요.

예수님! 나쁜 마음이 오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1. 용서

(마태복음 18:21-35)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여쭙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해주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일곱 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일곱 번이면 완벽해. 더 이상 용서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깜짝 놀랄 말씀이셨어요.

“아니다, 베드로야.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네에, 예수님?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이요? 그럼 칠칠이 사십구 음~ 사백 구십 번이요?”

“어허! 그건 끝까지 용서해야한다는 뜻이다. 자, 이제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보아라.”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날이 되었어요.

어느 종의 차례가 되어 빌린 돈을 계산하니 만 달란트나 되는 큰 액수였어요. 주인 앞에 나온 종이 빌었어요.

“주인님, 제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변명은 필요 없다. 당장 빌린 돈을 갚아라.”

“주인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이놈!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

“제겐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 몸을 팔아라.”

“네에? 제 몸을 팔면 제 아내와 자식들은 굶어 죽습니다.”

“네 아내와 자식도 팔아!”

“주인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봐 줄 수 없어.”

“주인님! 제발 참아주세요.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제발요…….”

종은 주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빌었어요. 종의 모습을 본 주인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말했어요.

“자, 이제 집에 가거라. 너의 빚을 모두 없애주겠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빚지지 말고 네 가족들과 열심히 살아라.”

“주인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종은 날아갈 듯이 기뻐어요. 집으로 달려가다가 자기에게 빛진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는 말했어요.

“야, 너 나에게 빌려간 돈 백 데나리온 있지? 지금 당장 갚아!”

“지금 돈이 없어요. 시간을 주면 제가 꼭 갚을게요.”

“뭐라고? 지금 내 돈 내놓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제발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 게요.”

그러나 그 종은 자기에게 빛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 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를 불렀어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불쌍해서 내가 그 큰 액수의 빚을 없애주었다. 그럼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없애주어야지!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 나도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주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봐라! 이 악한 종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악한 종은 주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태복음 18:35)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베드로가 나에게 “형제의 죄를 일곱 번 용서하면 될까요?”라고 물을 때 내가 그의 표정을 보았지.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거야.’라는 표정이었어. 맞아.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엄청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기를 바라서.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 사랑을 늘 생각한다면 용서하는 것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우리 모두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자라나자.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제 제 짝꿍이 제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니 미안해져서 장난감을 주려고 짝꿍에게 갔어요.

근데요. 짝꿍이 “흥!”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짝꿍을 용서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일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2. 영생을 얻고 싶어요.

( 마태복음 19:13-30, 마가복음 10:17-31, 누가복음 18:18-30)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에게 선하다고 했니?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네가 영원히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된다.”

“어느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 계명 잘 알아요.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말고도 또 있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예수님! 그것이라면 자신 있어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다 지켜 왔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예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켰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아, 너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니?”

“네,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네넝! 물론이에요. 말씀만 해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도록 해.”

“.....”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는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돌아갔어요.

‘휴! 내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아! 난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희들을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잘 들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버린 것의 백 배를 받을 것이야. 그러나 박해도 함께 받을 거야.”

“주님! 그럼 저희의 구원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 모두 영생을 받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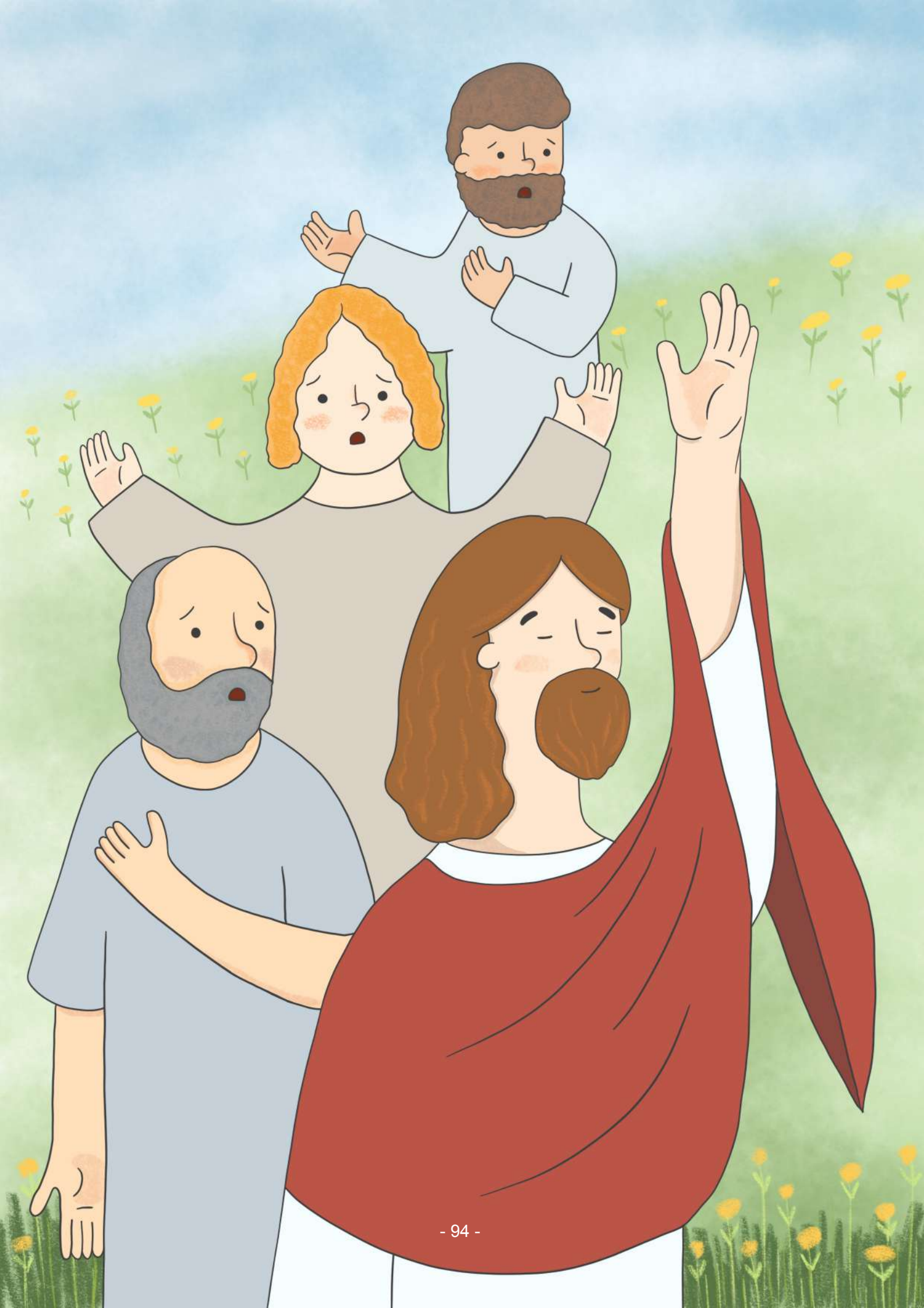
“네, 예수님!”

“그러나 명심하도록 해.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사람도 많다는 것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0:31)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부자 청년이 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 물어보기에 나는 그가 기특했다. 구원받기를 몹시 원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사랑스러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받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순종할 수 없었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지?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저는요 욕심쟁이예요. 무엇을 갖더라도 한 개보다는 두 개, 세 개 많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동생에게 주는 것도 싫고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물건들이 쌓여있어요. 장난감 부자, 게임 부자, 쿠폰 부자 등등.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근데요. 이제 안 그럴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더라구요. 자꾸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저요. 부자 안 될래요. 모두 버리고 천국 부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3. 등불을 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1-13)

열 명의 처녀가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신랑 맞을 준비 다 했어?”

“응! 어서 나가보자. 신랑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래 나가자. 근데 벌써 날이 저물었네. 등을 켜서 나가야겠어.”

“잠깐만 기다려주라. 혹시 모르니까 난 그릇에 기름을 따로 더 담아야겠어.”

“싫어, 난 그냥 갈래. 신랑이 벌써 왔을지도 몰라.”

“맞아. 꾸물대다 신랑보다 늦게 가면 큰일 나. 지금 등에 담겨있는 기름이면 충분할 거야.”

열 명의 처녀 중 다섯 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다섯 명은 등만 들고 나갔어요.

열 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문밖에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이 어디쯤 오고 있으시려나?”

“글쎄.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졸기 시작했어요.



“아이 졸려. 너희는 괜찮아? 난 눈 좀 붙일게 신랑 오면 깨워줘.”  
“나도 졸려. 눈이 저절로 감겨. 나도 꼭 깨워줘.”

깨어있던 처녀들도 밤이 깊어가자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어 시끌벅적하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자, 신랑이 왔다. 나와 맞으라!”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그때 등만 가지고 온 처녀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어! 큰일 났다. 등에 기름이 떨어져간다. 불꽃이 작아졌어.”  
“어떡하지? 이러다 신랑을 맞으러 못 가겠어.”  
“애들아, 기름 좀 빌려줘. 우리 등이 꺼져 가고 있어.”  
“아! 꺼져버리고 말았어. 어떡해.”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긴 한데……. 미안해.”  
“우리가 너희에게 기름을 나누어주면 우리들의 기름도 모자라게 될 거야.”  
“정말 미안해. 기름을 조금 준다 해도 너희 등도 금방 꺼지고 말 걸? 그럴 바에야 마트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때?”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려고 나갔어요.

“빨리 서둘러. 새로 생긴 마트는 24시야.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어서 기름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빨리 가 보자.”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어요.

“자, 나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자.”

신랑과 다섯 처녀들이 들어가자 문이 굳게 닫혔어요. 한편 나머지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왔어요.

“똑 똑 똑 똑! 저희가 돌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문 안에서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밖에서 슬프게 울며 기다렸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25:13)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내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한 것 기억나니?

그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도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다시 갈 그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와 함께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어. 난 그동안 너희들이 천국에 와서 살 집을 짓고 있을게. 사랑해!

너희를 기다리는 신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저는 맨날 덜렁대요. 그래서 엄마는 저보고 덜렁이래요.

아침에 어린이 집에 갈 때에도 몇 번씩이나 방에 다시 들어와요.

깜빡하고 빼놓고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예요.

준비를 잘해서 천국 문에 들어간 다섯 처녀들처럼 저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게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간 다섯 처녀처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 14. 혼인 잔치에 초대 받은 사람

( 마태복음 22:1-14, 누가복음 14:15-24)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주셨어요. 오늘은 천국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이 혼인 잔치할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었어요.

“임금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난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어요.

“임금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임금의 초대에 가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미안하다고 전해주소.”

“나는 소 열 마리를 사서 쟁기를 잘 끄는지 시험하러 가야해요. 그러니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나는 이제 막 장가 들었소. 그래서 갈 수 없어요.”

그들은 초대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냈어요.

“살인한 자들을 찾아내어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너라.”

“네, 임금님!”

종들이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데려왔어요.

“임금님!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왔어요.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길과 산울타리 외진 곳으로도 나가거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 번 권하여 데려오도록 해라.”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금님!”

“내가 전에 초대하였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종들이 데려온 사람들로 잔치의 자리가 다 찼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여!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봐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네, 임금님!”

“초대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4)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너희는 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올 거지?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들어와야 한다.

그 예복이 바로 신앙고백이란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아야.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리는 천국 잔치에서 꼭  
만나자.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저 천국 잔치에 꼭 가고 싶어요. 친구 생일 잔치도 너무너  
무 재미있는데 천국 잔치는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예수님! 저는요.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릴 때 행복해요.

천사 같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놀  
이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점심 먹는 것도 좋아요. 그래  
서 그 시간이 천국 잔치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5. 참 잘했어요.

( 마태복음 25:14-30, 누가복음 19:11-27)

어떤 주인이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어야했어요.  
그는 종들을 불러 자기소유를 나누어 맡겼어요.

“자, 내가 오래 집을 비울 것이다. 내가 나의 소유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니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잘하도록 해.”

“네, 주인님!”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  
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너희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뭐 할 거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장사니까 난 장사할래.

“난 뭐하지? 장사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나도 장사할래.”

“그럼 빨리 장사를 시작해야겠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와! 장사해서 번 돈이 모두 열 달란트야.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  
야호!”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끝났네. 어디 얼마나 벌었는지 세어볼까? 모두 네 달란트  
니까 두 달란트를 남겼어. 음. 이 정도면 난 최선을 다했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고민이 되었어요.

“난 장사도 못 하고 한다고 해도 남기지 못하고 손해 보면 주인한테 엄청 혼나겠지? 어떡하지?……에이 모르겠다. 그냥 땅을 파고 주인한테 받은 돈을 감추어두자. 적어도 손해는 안볼 테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예들아, 내가 왔다. 그동안 너희들에게 맡긴 돈을 가지고 와 봐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왔어요.

“주인님! 저에게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여기 열 달란트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 말했어요.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왔어요.

“주인님! 저에게 두 달란트 주셨는데 장사해서 두 달란트 남겼어요. 받으세요. 네 달란트예요.”



주인은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왔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시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주인님의 돈!”

주인이 종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도 않고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어? 그러면 네가 받은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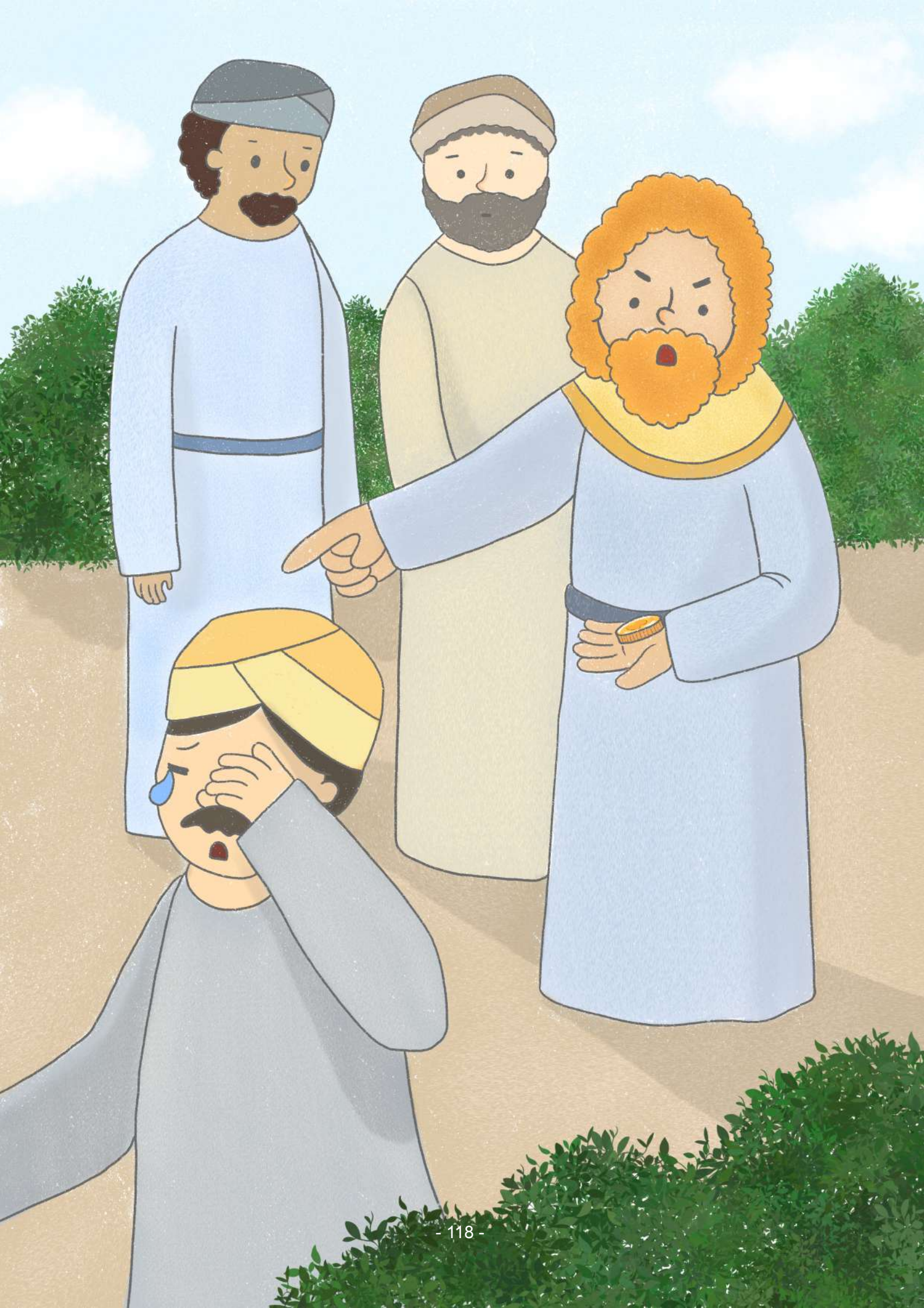
그리곤 화가 나서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자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리고 아무 쓸 데 없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21)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혹시 너희가 왜 종들에게 돈을 똑 같이 주지 않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누구에게는 찬양 잘 하는 재능을, 누구에게는 글 쓰는 재능을, 누구에게는 말 잘하는 재능을, 누구에게는 계산 잘 하는 재능을 주셨어.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재능을 성실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것이야. 잘 알겠지?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잘 알겠어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음~. 저는요. 친구들이 나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속상한 마음이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상담사가 되려구요. 잘 할 수 있겠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다할래요. 주님께 꼭 칭찬받을 거예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6.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36-46, 마가복음 14:32-42, 누가복음 22:39-46)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갔어요. 그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것이니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내가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네,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몹시 슬퍼보였어요. 고민이 많으신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지금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줘. 졸지 말고 꼭 깨어있어야 해. 제발.”

힘겹게 말씀하시고는 돌을 던질만한 거리만큼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빠!……아버지!”



“아빠! 내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고난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이 건 나의 소원이니 못들은 거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진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어?”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하여 네 뜻대로 안되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놓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빠!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보태주었어요.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 그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너무 졸려서 예수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잠이 깨지 않은 상태라 예수님께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할 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피곤해 보이는 제자들을 자게 두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빠!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더욱 간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어라.”

“예수님! 죄송해요. 아무리 깨어 있으려 해도 잠이 쏟아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할게요.”

“아니다. 이젠 때가 되었어.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된 것 같구나.”

“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저기 보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잖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42)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제자들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더라구. 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하는데 온몸의 가는 핏줄들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어.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니까 오히려 맘이 편해지더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나의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자. 사랑해.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죄송해요.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전 밥 먹기 전 기도도 제대로 안 했어요. 엄마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쏘시지 반찬을 해줬거든요. 완전 빨리 먹어버렸어요. 다 먹고 나니까 기도 안하고 먹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먹었어요.”라고 했는데 괜 찱아요?

예수님! 이제부터 기도 잘 할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나의 아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또 편지 쓸게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 성경이야기2